

SPC 시화공장 화재...광주 외식·유통업계 빵 수급 차질

잠깐은 버티지만, 장기화되면 매출 타격 불가피
편의점·버거·베이커리 업계 대체 상품 찾기 분주

경기 시흥시 SPC삼립(SPC) 시화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광주 지역 외식·유통 업계 전반에서 빵 수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루 이틀은 재고와 대체 상품으로 버틸 수 있지만, 당장 5일부터 수급이 끊기고 생산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설 명절, 겨울방학 등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는 한숨이 새나오고 있다.

4일 SPC그룹의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홈페이지에는 “공장 화재로 어린이 치즈케이크와 촉촉한 치

즈케이크(사진) 등 2종 생산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동시에 버거킹, 롯데리아, KFC 등 SPC로부터 빵을 공급받는 업체 업주들도 “1~2일 안으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것 같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호남대 인근의 한 버거킹 매장 관계자는 “어제 발주한 물량은 정상 입고됐지만, 오늘 발주한 제품이 내일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일부 햄버거 빵만 문제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메뉴까지 수급이 안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광주선운점 점장도 “내일부터는 키

즈제품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안내받았다. 키즈 제품이 인기 품목인데다 명절에 방학까지 겹쳐 대목인데 매출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라인이 정상화되면 시간이 걸릴 텐데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편의점을 비롯해 SPC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던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 편의점 점주들도 같은 날 SPC의 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SPC 빵이 아닌 유사 상품으로 대체 진열·판매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 입을 모았다.

GS25 선운중앙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제조사와 관계없이 유사 상품으로 대체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SPC 제품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당장 대체할 것을 찾으라니 오늘은 아예 발주를 넣지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다수의 업체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SPC 빵 제품 발주가 막히면서 대체 상품을 찾아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식빵이나 호빵처럼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이 다수인데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과거 SPC 내 인명사고로 발주가 끊겼을 때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라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명절과 맞물려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경기 시흥시 석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8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공장은 현재 전 공정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따뜻한 햇살 아래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돈 4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신보 징검다리를 한 시민이 건너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6일부터 강추위...주말 눈

광주·전남 지역에서 6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고 주말에는 눈이 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부터 주말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떨어져 출겠다고 4일 예보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3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를 보이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6~1도로 전날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 머무르겠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9~영하4도를 보이고, 8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1~영하3도까지 떨어지겠다. 주말인 7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교통문화지수’ 최하위 강진 민원서비스도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 지자체 유일 ‘마’ 등급...완도군과 불명예

강진군과 완도군이 행정안전 분야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전략과 체계, 제도 운영 방식, 만족도 등 기관의 민원 처리 능력을 판단하는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종합점수 순위 기준으로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었다.

평가 결과 강진군은 완도군과 함께 ‘마’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광주·전남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강진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통계’에서도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82개 군 중 8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등 항목에서 0점을 받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진군은 오는 21일부터 개막하는 강진청자축제에의 공연무대 출연가수 섭외 과정에서 학폭논란을 빚은 트로트 가수과 계약을 진행했다가 반발을 샀다.

강진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13일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월 따뜻하다면서요”...빛나간(?) 예보

기상청 “기압 배치 예상 못하게 변해...차가운 공기 간헐 추위 이어져”

올해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던 기상청 예보가 빗나갔다. 이와 관련 기상청이 기압 배치가 예상치 못하게 변하면서 한반도에 차가운 공기가 간헐했고, 이 때문에 1월 하순 ‘살을 에는’ 추위가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기후특성’ 자료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0.6도 낮았다. 1월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만이다.

1월 상순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 중순 들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이후 1월 19일부터는 열흘 넘게 평균기온이

평년(1.7도) 수준을 밑도는 강추위가 지속됐다. 앞서 기상청은 이번 겨울 3개월(2025년 12월~2026년 2월) 전망을 발표할 당시 올해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 40%, 높을 확률이 40%라고 예상했다.

막상 1월 하순이 되자, 동시베리아-베링해 부근에서 남쪽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상층의 찬 기압골 영향을 받아 한반도로 모여든 찬 공기가 블로킹에 막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강수량과 강수일 수도 적었다.

1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5.6mm로 평년(29.6mm)의 18.9% 수준으로 역대 4번째로 적었고, 지난해(12.8mm)보다 7.2mm 적었다. 강수일수는 3.4일로 평년보다 4.5일 적었다. 1월 눈일수는 8일로 평년(7.5일) 수준이었다.

반면 해수면 온도는 겨울답지 않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2.4도로 2020년 12.7도에 이어 최근 10년(2017~2026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기상청은 2월 광주·전남 평균 기온은 평년(2.6도~3.8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일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은 평년(32.4~49.5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선장에 징역 5년 구형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컨체누비아2호의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컨체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협수로 구간에서 부주의한 여객선 운항으로 신안군 장산면 죽도에 배가 충돌하게 해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을 운항하는 중 선장실에 머무르면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컨체누비아2호 좌초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으며,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죽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직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 전형일: 2026. 2. 6.(금)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